

# 권력순환과 국가혁신

## 1. 권력순환과 사회발전

지금까지우리는권력 순환적측면에서국가의 경제발전과사회변동에대해서논의하였다. 권력 순환이론은인간의사회적경제적행동에대해서 다음을전제로한다.

- 인간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생존에 있다.
- 인간의 사회적 삶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의존관계나 공생관계와 같은 특성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생명체는자신의 생존을위한 생존력이나 생명력을가지고있다. 생명체가가지고있는이러한 생존력또는생명력은생존본능에따라 천부적으로주어진것이다. 따라서인간은생명체로서인간의사회적또는경제적활동의궁극적목표는자신의 생존을영위하는데있다. 경제발전이론에서 신고전주의자들(인간의경제적행위는자신의 이기적인이익을추구하는데 있다고한다. 이에 비해서제도주의자들(인간은최적해를구하기보

다 만족수준에서 의사결정을하기도 하고, 자신의이익만을추구하기보다도덕, 윤리또는애국심과 같은 가치 측면에서도의사결정을 한다고한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경제 활동에

자신의경제적이익을추구하거나가치를추구하거나간에인간의경제적활동의궁극적이고우선적인 목표는인간자신의 생존에있다. 왜냐하면 생존본능은모든 생명체에게천부적으로주어진 거역할수없는명령이기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홀로생존할수없다. 자연의 상존 법칙은생명체들로하여금 집단적으로군집을이루어 생존을영위하거나다른 개체와생존에필요로 하는 것을교환하는교환관계(예로서 의존관계 또는공생관계)를 통해서생존하게한다.

인간은사회적존재로서생존을위해 사회적공동체(Social Community)를 형성한다. Stebbens



교수 이 경 환  
한국산학경영학회 회장  
인하대 경영대학  
032-860-7735  
leekh@inha.ac.kr



(1987)에 의하면 공동체란 공동의 영토적 기초 (common territorial base)를 가진 사회적집단으로서 이들은 이해(interest)를 공유하고집단에 대한 소속감을가진다고한다. Hillery(1955)는공동체 개념은지리적영역(geographic area), 사회적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및공유된유대(shared ties)를 포함한다고한다. 따라서사회 공동체내에서 인간의삶은 독립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간에 상호작용과공유된관계를통해 이루어진다.

권력은사회 공동체의구성원들간에 상호작용과 관계를변화시킬수 있는명시적또는묵시적 능력이다. 인간의생존은앞에서는의한바와같이 사회공동체의구성원들간에 상호작용과공유된 관계를통해이루어지므로권력관계는사회공동체 삶의모든측면에존재하며피할수없다. 또한사회 공동체적생존은그 구성원들로하여금경쟁과 협력의생존질서를요구한다. 권력관계는사회 공동체적생활의모든국면에서발생하므로사회 공동체구성원들간에 경쟁과협력은권력의창출과 결합으로나타난다. 즉사회 공동체의구성원들은 사회공동체적삶을위해권력의창출과결합을통해 경쟁과협력의동적생존질서를구축한다. 사회 공동체적생존질서를위한 사회 공동체구성원들의 권력 창출과결합을통한 경쟁과협력의동적 프로세스를Concordance process라고한다.

논의한바와같이 Concordance process의 권력 창출과권력 결합은권력프로세스에의해서이루어진다. 권력프로세스는권력요소를중심으로욕구, 가치, 환경및 관계성간에동적상호작용을의미한다. 인간은권력행사를통해서사회공동체내에서이러한상호작용이나공유된관계를자신에게 유리하게변화시킴으로써생존하고한다. 권력

행사는권력원천에의존하여이루어진다. 권력원천은 권력행사의근거를 제공하는것으로서이는 권력프로세스를통해서창출된다. 권력결합은권력프로세스에의한둘 이상의권력요소또는권력주체들간의결합을의미한다.

Concordance process에서권력주체들간의권력 창출경쟁과권력결합은사회적분화를유발할뿐만 아니라협력적상관계를유발한다. 권력주체로서인간은천부적능력에차이가있을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자신의생존에유리한권력보다 높은가치를두고있다. 따라서인간은본능적으로 자신의천부적능력을권력요소로하여 자신의생존에 유리한권력을창조적으로창출하여생존하고자한다. 즉개인에따라 차이를보이는천부적인 능력과욕구, 환경, 가치및 관계성의동적작용에 의한권력프로세스는개인에따라서로다른권력원천을창출하여이러한권력원천의차이는수평적또는수직적사회분화를유발한다. 이러한수평적·수직적사회분화는필연적으로협력적생존 관계로이끈다.

권력주체인인간이만든사회는경제적, 비가시적 및 가시적권력 시스템으로구성된권력공간(power space)이다. 권력공간에서각각의권력시스템은자신의고유한권력 하위시스템으로구성된다. 예로서경제적권력 시스템은자본, 자연자원, 기술, 국토와같은 하위시스템으로구성된다. 비가시적권력시스템은이념, 가치, 문화, 믿음, 관습, 윤리와같은 하위 시스템으로구성되며, 가시적 권력시스템은제도, 법률, 협약, 규칙, 군사력과같은 하위 시스템으로구성된다.

대부분의권력은 생성되어성장하고안정기를 거쳐 궁극적으로소멸한다. 국가나왕조는권력체로서탄생하여번영하고안정기를거쳐 소멸한다.

한 시대를 지배하던 이념이나 사상도 시대가 바뀌면 쇠퇴한다. 국가와 사회적 권력인 제도는 생성되어 확산되고 역사에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제도는 폐지된다.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도 인기를 거처 성장하며 안정기에 이르러 쇠퇴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쇠퇴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 즉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의한 사회 변화로 연결된다.

## 2. 권력순환과 혁신의 관리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순환은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유발한다. 이러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 원리의 적용이 요청된다. 권력순환은 권력순환 원리를 따른다. 권력순환 원리는 권력의 다섯 가지 속성의 동시다발적 작용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다.

- 권력밀도가 크고 부피가 큰 권력은 위로 올라가고, 권력밀도가 작고 부피가 적은 권력은 아래로 내려간다.

권력의 크기는 권력밀도와 권력부피에 의해서 결정된다(권력의 크기 = 권력밀도 × 권력부피). 권력밀도는 상대의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정도로서 흔히 권력의 강도나 영향력을 의미한다. 권력부피는 권력의 시간적, 공간적 지배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지지율 따진다.

권력의 크기는 권력의 부피보다 권력의 비중에 보다 의존한다. 예로 사육회의원의 수가 많을 경우 외형적인 권력의 부피는 클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은 외형적 부피에 비례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특정 상품이 고객을 보다 만족시키고 이러한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날 경우 이러한 상품은 패션이나 유행을 주도하여 시장을 지배한다.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의 경우 여론의 강도와 지지율이 국가 정책을 흔히 결정한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상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권력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 속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큰 권력에 속하고자 하는 귀속 속성이 있다. 권력의 이러한 지배/귀속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권력 상존을 위협할 수 없는 국면이다.

- 권력의 무게 중심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흐른다.

권력핵은 권력 자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할 수 없는 권력 주체를 뜻하며, 이러한 권력핵은 권력 조직에서의 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권력의 무게 중심은 권력핵의 의사결정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력 주체를 의미한다. 권력의 무게 중심은 권력 조직 내에 존재하거나 권력 조직 밖에도 존재할 수 있다. 보다 큰 무게 중심은 권력핵의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권력 조직에서 권력핵과 권력 무게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권력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권력핵과 권력 무게 중심 간에 갈등 관계일 경우 권력 조직 내 추종자들은 권력 무게 중심에 보다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권력 관계에 무게 중심이 작은 권력은 무게 중심이 보다 큰 권력으로 귀속 또는 결합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권력이 붕괴될 경우에도 보다 작은 무게 중심은 보다 큰 무게 중심에 귀속하거나 결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 윤리, 종교적 신념, 애국심과 같은 다양한 권력에 영향을 받으나 행동과정의 선택과 의사결정은 보다 큰 권력에 의해서 지배된다. 국가 수준에서 볼 때 정권을 잡은 여당이나 행정부의 핵심



국가수반이 권력의 무게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야당이 국가 권력의 무게 중심이었을 수도 있다.

● 권력핵의 극대화는 극소화와 같은 원리다.

권력조직은 권력핵과 이들을 추종하는 주변부로 구성된다. 권력핵은 추종자들의 이해를 만족시킴으로써 이들을 귀속시키고 권력 주변부를 형성하게 하며 권력핵을 보존하게 함으로써 권력 생존 기회를 높이고자 한다. 권력핵 주변부를 만족시킬수록 추종자의 수는 증가하며 이를 통해 권력은 보다 확대되어진다. 그러나 권력핵에 대한 권력 집중을 통한 권력핵의 극대화는 권력핵의 탄력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권력핵에 대한 권력의 지나친 집중은 역 흐름에 따라 형성되어 성장된 새로운 권력이나 질서에 의해 붕괴될 수도 있다. 권력핵의 응집력이 높고, 권력핵을 중심으로 권력의 수직적 성장이 유지되고, 권력핵의 탄력성이 높을 경우 권력핵의 생존기회는 높아진다. 권력핵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권력핵을 중심으로 권력의 수직적 성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권력핵이 자신의 권력을 주변부에 분산시킬 경우 주변부는 정체성을 가진 하위 권력조직으로 발전되며, 이러한 권력은 다양성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권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핵의 극대화는 권력핵의 극대화보다 권력 분산을 통해 권력핵의 극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력 분산에서 권력핵의 탄력성 유지와 함께 권력핵을 중심으로 권력의 수직적 성장이 유지될 경우 이러한 권력은 생존 가능성이 높다. 권력 분산은 권력핵의 분산의 의미를 하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핵 주변부를 분산하며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표준 권력 모형은 80:20의 규칙을 따른다. 예로 권력

에 참여자 10명 중 20은 방관자를 의미한다. 참여자 10명 중 30은 권력핵이며 50은 적극적 추종자일 경우 이러한 권력조직은 양호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 나라의 비농사에서 전체 경작 면적 중 30%는 풍작이고, 50%는 평년작이며, 나머지 20%는 평년작 미만이라도 이러한 국가 비농사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흔히 나타난다.

●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이 의도된 경쟁보다 진보가 빠르다.

권력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다. 자생적 질서는 전통, 도덕, 종교, 관행, 동규범과 비(非)성문화된 규칙과 같이 사회 상호 작용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산물로서 이는 흔히 비가시적 권력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체제나 법률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어진 것으로 이는 흔히 가시적 권력을 의미한다. 자생적 경쟁은 비가시적 권력에 의한 비가시적 생존 질서에 의한 경쟁을 의미하며 의도된 경쟁은 설계된 가시적 권력에 의한 경쟁을 뜻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은 의도된 경쟁에 비해 권력 의 다섯 가지 지속성 작용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권력은 가치 중립적이다. 경쟁 관계 내 권력 관계에서 권력 의 다섯 가지 지속성 작용이 자발적이지 않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권력 작용은 권력 의 역기능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 구성원의 효익을 저해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은 권력 의 다섯 가지 지속성 작용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자생적 경쟁에서 권력은 순기능을 흔히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권력은 의도된 권력보다 진보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서 신고전주의에서 사

유경쟁시장은자연적이며정상적인질서로본다. 자연적이며정상적인비가시적시장에의한경쟁은제도주의와가시적인제도경쟁보다일반적으로효율적이라고믿고있다. 자유로운또는자생적경쟁이의도된경쟁보다진보가빠르므로비가시적권력에의한경쟁이가시적권력에의한경쟁보다진보가빠르다는것알수있다.

● 권력의 수직적 성장보다 권력의 수평적 성장이 보다 위험하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권력은 Concordance process를 통해 권력의수평적또는수직적성장을한다. 권력의수평적성장은권력 간에 대등한또는평등한영향력관계를의미한다. 이예해 권력의 수직적성장은권력 간에 위계적또는서열적작용관계를의미한다.

권력은사회적갈등의조정수단이다. 인간외해는다양할뿐만아니라때로는상충관계에있다. 이러한다양한이해의대립또는갈등관계는권력의 수직적성장이나권력결합에의해서이해가조정되거나협력적관계로변화될수있다.

권력의 수직적 성장에서 귀속 권력은 지배 권력 내에 안주하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따라 기회를 탐색하고 정체성을 보존하고 권력 성장을 통해 권력의 지배/귀속을 발전시키고자한다. 이러한 권력 수직적 성장은 권력과 concordance process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권력 간에 새로운 동적 균형으로 유도한다. 예로서 권력은 지배/귀속 속성에 따라 하나의 권력이 강화되어 다른 권력을 지배하려고 할 경우 속되는 권력은 권력의 주체적 또는 객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한다. 권력의 수직적 성장은 concordance process와 권력의 동적 균형과 함께 권력 순환을 유발하여 변화를 주도한다.

갈등이나 대립 관계에 있는 권력 간에 권력의 수평적 성장이 있을 경우 이는 정체를 의미한다. 욕구가 다른 권력들이 권력의 수평적 성장 관계에 있을 경우 권력의 속성 작용이 억제된다. 권력 속성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 권력의 역기능을 야기하므로 이는 사회 구성원의 효익을 저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의 수직적 성장보다 권력의 수평적 성장이 보다 위험하다.

● 권력의 수직적 성장은 경제 발전 원리와 통한다.

권력 주체들은 제각기 자신에게 유리한 권력에 의한 권력 지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생존하고자한다. 예로서 정치인은 정치적 권력의 지배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기업인은 기업 지배를 통해서 생존하고자한다. 특정의 국가는 군사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하며, 행정부의 관료들은 자신의 법률적 지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한다. 사회는 경제적,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권력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권력 중에서 권력 주체가 어느 하나 이상의 권력에서 우위를 누릴 경우 이러한 권력 주체는 권력 지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권력 주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생존을 위해 충분한 능력을 권력 요소로 하여 보다 영향력이 있는 권력을 창출하고자한다. 인간의 천부적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권력 주체로서 시간은 이러한 천부적 능력과 욕구, 가치, 환경, 관계성 상호 작용을 통해 지배적 권력 원천을 창출하며 권력 지배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경제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경제 주체는 하나 이상의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볼 때 특정의 국가가 모든 권력 요



소에서 우위를 누릴 수 없다. 특정의 국가가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특정 국가가 인적 자원에서, 또 다른 국가가 자연적 자원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특정 권력에서 우위는 국가로 하여금 경제적 득과 함께 국가 생존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발전하거나 경제적이득을 얻고 있는 국가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중에 하나 이상의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경제적이득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 권력요소를 중심으로 권력의 수직적 성장을 유지할 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 이상의 천부적인 권력요소를 가지고 있다.

권력의 수평적 성장은 하행평준화에도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 발전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력의 수직적 성장은 경제발전 기회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형성된 권력은 다른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이러한 권력을 포함할 수 있다.**

욕구는 흔히 결핍으로 정의된다. 결핍으로서 욕구는 단순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의미보다 새로운 것을 위한 도약으로 볼 수 있다. 욕구 충족은 부족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 변화와 발전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권력 변환은 욕구에 의해서 유발되므로 모든 권력은 목적지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권력 주체는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 원천을 창출하며 이에 근거한 권력 행사를 통해 자신의 목적지향적인 욕구를 달성한다.

권력 결합은 권력요소를 중심으로한 권력주체나 권력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모든 권력은 목적지향적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권력이다른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이러한 권력은 다른 권력을 결합하거나 포함할 수 있다. 예로서 국가이익이나 정치적 명분을 빙자한 이기적 관료주의가 권력주체인 국민의 욕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관심을 보일 경우 국민들은 정치권력에 무관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은 진정한 무관심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위한 소망의 의미한다. 이기적 관료주의가 파괴될 때 국민들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은 다른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이러한 권력은 다른 권력을 포함할 수 있다.

● **권력의 변환은 주체적, 객체적 변환과 객체적, 주체적 변환이다.**

권력 변환은 주체적 입장과 객체적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다. 권력의 주체적 변환은 권력주체의 자체적 반성과 새로운 생성을 위한 도약요구에 의한 권력 변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스스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체적 변환은 자생적 권력을 형성한다. 권력의 객체적 변환은 외부적 권력이나 다른 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권력 변환을 의미한다. 권력의 이러한 객체적 변환은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으로 상대의 권력을 흡수하고자 한다.

권력은 형성기에는 권력 성장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지만 성장기에는 권력의 확대나 성장이가속화되어진다. 왜냐하면 형성된 권력은 움직이는 활동적인 다른 권력과의 동적 관계에서 성장과 확대를 도모하므로 권력 성장을 위해서는 권력핵의 동적 작용에 따른 가속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형성되는 순간부터 권력 공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권력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권력은



형성되는순간부터권력공간내 다른권력에영향을 미치고또한영향을받는다. 형성되는권력이강할 경우약한권력을귀속시킨다. 형성되는권력이약할경우다른보다강한권력에귀속하여생존한다. 때로는형성되는권력과기존의권력과권력결합을통해 생존을도모한다. 따라서형성되는권력은권력의주체적변환과함께 권력공간내 다른 권력의영향으로객체적변환을한다. 또한권력공간 내의권력은형성되는권력의영향력으로객체적 변환을하지만스스로의생존을위해주체적변환을도모한다.

권력의기본속성은활동적(activity)이다. 비활동적인권력은소멸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형성된권력이성장하기위해서는활동적인권력과접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비활동적인권력이나죽은 권력은가치가없으므로이들은버려지거나무관심해지기때문이다. 권력소멸기에서도생존을위해자기과시를하는경향을보인다. 형성되는권력이소멸되는권력에접촉하면소멸되는권력은생존을위해접촉을받아들인다. 그렇지않을경우 이러한권력은죽는다. 생존을위해소멸되는권력은형성되는권력에접목되어야한다.

● 경쟁력은 권력작용의긍정적인결과이다.

권력은가치 중립적이다. 권력의가치중립성은 그 자체에긍정적인속성과부정적인속성이공존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주체들경제활동은경제적, 비가시적, 가시 권력공간내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주체들은스스로경제적, 비가시적, 가시적권력을창출하여권력공간내의 권력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권력공간의권력으로부터도영향을받고있다. 경제주체의경제적활동에서이러한 권력창출과권력 간의 영향력이긍정적으로

또는부정적으로나타날수도있다.

예로서기업이생산한제품이나기술은기업권력의 원천이다. 기업은그들의제품이나기술을권력 원천으로하여 시장에서권력행사를한다. 기업의이러한권력행사가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수도있다. 경쟁관계에서기업 권력행사가긍정적일 경우 소비자들은이러한기업의제품이나기술에 귀속하게된다. 소비자기업의제품이나기술에 귀속할경우, 이러한기업은시장에서경쟁력을지니게된다. 기업이창출할수 있는권력의원천은 다양하다. 권력공간내에서기업이창출한권력이긍정적인작용을할 때 이러한기업은경쟁력을누릴수있다.

국가는경제제도나법률을통해서경제주체에영향을미친다. 경제주체에 재사용한권력 작용이긍정적일경우이는경제주체들로부터여생산적인경제활동에참여하게함으로서국가경제를성공적으로유도한다. 이에비해서권력작용의결과가부정적일경우 이러한권력은경제주체로부터여경제적활동에대한의욕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사회 경제질서를붕괴시킬수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 때 국가나기업의경쟁력은권력작용의긍정적인결과라는것을알수있다.

권력의순기능은권력행의권력행사나외도나목적과함께 권력의다섯가지 속성작용이효율적으로 작용하는가에의존한다. 권력행의권력행사나외도나목적의선하고, 권력의다섯가지 속성작용이 효율적일경우 이러한권력은순기능을발휘할 가능성이매우높다. 그러나역기능적권력이모두 부정적인결과만을유도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역기능적권력이라도권력의역할변이에의해서순기능적결과를기할수있기때문이다.

| 기술표준2007. 7